



뉴스케일 파워 26Q3 Preview SMR · NYSE

매출 공백보다 TVA·RoPower 진전 여부가 관건, 투자 의견 중립 유지

2026. 10. 28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투자의견

중립

확신도 중간 · 유지 (8/5)

현재주가(10/27) **\$5.70**
목표주가(컨센서스 평균) **\$11.34**
상승여력 **+98.9%**

Key Data

시가총액 24억 달러
52주 최고 / 최저 \$44.87 / \$5.27
목표주가 범위 \$4 ~ \$20
티커 SMR · NYSE
업종 산업 · 전기 장비

주가 수익률

	1M	3M	12M
절대(%)	-27.9	-24.9	-84.9
S&P 대비(%p)	-27.1	-28.2	-98.8

주가 추이(1년, 시작=100)



컨센서스(I/B/E/S)

억 달러	FY25	FY26E	FY27E
매출	0	0	2
영업이익	-7	-3	-3
순이익	-4	-2	-2
EPS(달러)	-2.17	-0.56	-0.70
P/E(배)	-	-	-

자료: LSEG, I/B/E/S, FactSet, 주가는 10/27 종가,
투자의견은 대신증권 AI 하우스 뷰

핵심 요약

- 11월 6일 발표에서 확인할 것은 손익이 아니라 계약이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6년 11월 6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이 확인하려는 한 가지는 ENTRA1-TVA 확정 전력구매계약과 RoPower 최종투자결정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도.
- 매출 컨센서스는 이미 참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번 분기 매출 컨센서스 1,343만 달러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연간 추정치 4,336만 달러의 하향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 주당손실 부합을 실적 부합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번 발표에서 주당손실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의미를 두기 어렵다.
- 시장은 변동성을 크게 보면서 방향은 상방에 쏠려 있다. 옵션시장은 발표 전후 19.39%의 주가 변동을 반영하고 있으며, 포지셔닝은 상방에 쏠려 있다.
- 재평가는 계약에서만 나오고, 지연되면 순자산이 잠식된다. 주가는 순현금에 계약 성사 가능성에 대한 옵션 가치가 더해진 구조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11월 6일 발표에서 확인할 것은 손익이 아니라 계약이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6년 11월 6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이 확인하려는 한 가지는 ENTRA1-TVA 확정 전력구매계약과 RoPower 최종투자결정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다. 회사는 Fluor의 FEED 2단계 용역이 2025년 말 종료된 이후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갔으며, 직전 분기 매출은 7.5만 달러에 그쳤다. 매출 기반이 사실상 없는 만큼 매출총이익률 · 영업이익률 같은 비율 지표는 사업 실질을 설명하지 못하고, 손실 절대금액과 대차대조표, 그리고 계약 진척도로 판단해야 하는 구간이다.

SMR 업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보유했다는 점이 이 회사의 프리미엄 근거이나, 그 인증이 매출로 전환되는 경로는 두 건의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미국에서는 ENTRA1이 TVA와 확정 전력구매계약을 향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고, 유럽에서는 루마니아 Doicești의 RoPower가 NPM 6기 기준으로 Nuclearelectrica 주주총회 의결에 붙은 부대조건을 충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 건 모두 직전 분기 보도자료에서는 새로운 진척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콜에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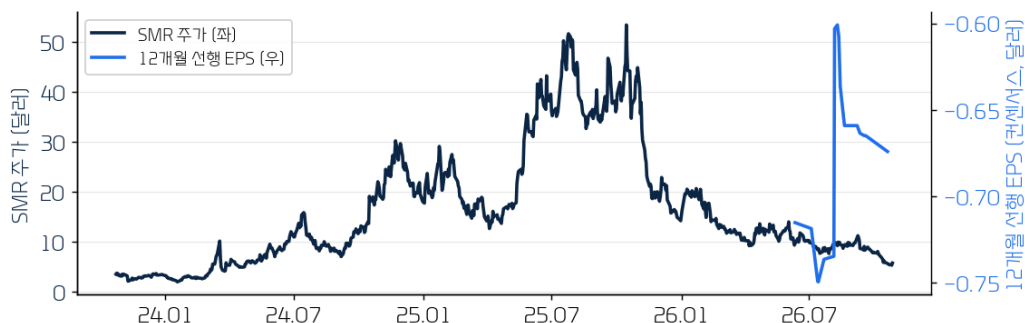
매출 컨센서스는 이미 참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번 분기 매출 컨센서스 1,343만 달러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연간 추정치 4,336만 달러의 하향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직전 분기에 시장은 매출 880만 달러를 기대했으나 실재는 7.5만 달러로 추정치의 1%에도 못 미쳤고, 상반기 누적 매출은 64만 달러에 그쳤다. 청구 가능한 신규 상업 프로젝트 착수가 공표된 바 없는 만큼 3분기 매출은 5만~200만 달러 범위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며, 매출 수치 자체보다 회사가 콜에서 매출 재개 시점을 언급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손실 규모는 상반기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영업비용이 연 1.7억~2.0억 달러 범위의 상단을 넘어서는지가 변수다. 직전 분기 영업손실은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4,308만 달러 대비 확대됐으며, 상반기 누적 영업비용은 1억 2,139만 달러다.

비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청구 가능 프로젝트가 줄면서 매출원가로 배분되던 인건비가 판관비로 이동한 회계적 결과인 만큼, R&D의 NPM 부품 성숙도 투자와 공급망 인력 확충이 더해질 경우 영업손실은 -6,000만 달러대에서 유지되거나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금 · 단기 및 장기투자 19억 달러에서 나오는 분기 1,300만~1,500만 달러 투자수익이 손실의 20% 이상을 상쇄하는 흐름은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뉴스케일 파워 주가와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 추이



자료: LSEG (주가) · I/B/E/S 12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당손실 부합을 실적 부합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번 발표에서 주당손실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의미를 두기 어렵다. 직전 분기 주당손실 -0.13달러는 컨센서스 -0.1303달러에 부합했으나, 영업손실은 추정치 대비 13%, 순손실은 16% 더 컸다. 주당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은 가중평균 주식수가 1억 3,342만 주에서 3억 6,452만 주로 늘어난 희석과 자회사 외부 주주에게 돌아간 손실이 줄어든 영향이며, 손실 총액과 주식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은 확충됐으나 재원이 전량 주식 발행이라는 점에서 희석 압력은 구조적으로 남아 있다. 총자산은 2025년 말 14.13억 달러에서 20.49억 달러로 늘었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은 상반기 주식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이다.

Class A 주식수가 같은 기간 28.9% 증가한 데다 8월 공시된 최대 7.5억 달러 규모 시장가 매출 프로그램이 더해진 만큼, 이번 분기 가중평균 주식수가 4억 1,000만 주를 넘어서는지와 분기 중 실제 인출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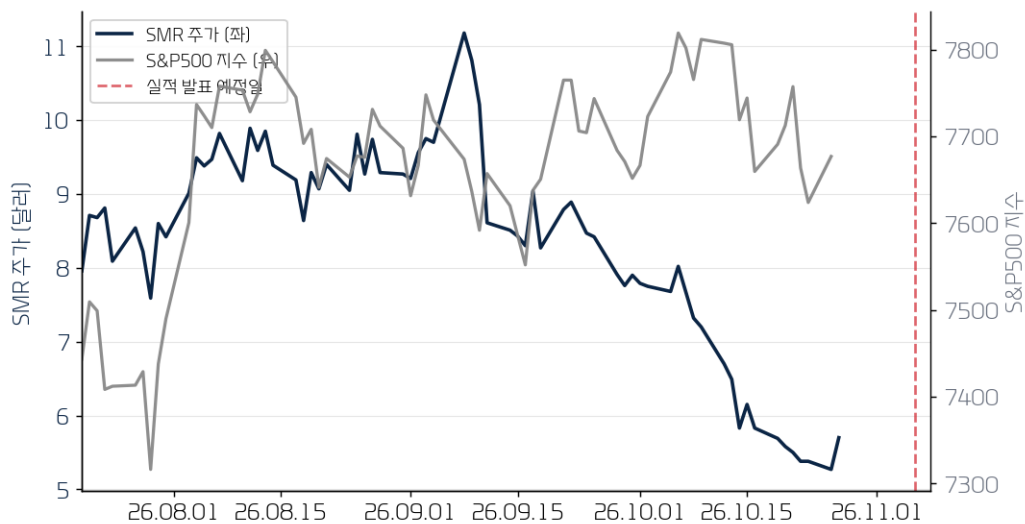
시장은 변동성을 크게 보면서 방향은 상방에 쏠려 있다

옵션시장은 발표 전후 19.39%의 주가 변동을 반영하고 있으며, 포지셔닝은 상방에 쏠려 있다. 30일 등가액 내재변동성이 82.81%로 높은 가운데 풋/콜 거래량 비율은 0.18에 그쳐 콜 거래가 압도적이다. 다만 25델타 스큐는 하방 헤지 수요가 일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손익이 아니라 계약 발표 하나에 주가가 좌우되는 구조여서, 결과가 어느 쪽이든 발표 당일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증권사 목표주가는 10월 들어 연쇄적으로 낮아졌다. Barclays가 목표주가를 11달러에서 5달러로 낮추며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 Citigroup 6.5달러 → 4달러, Truist 10달러 → 8달러, RBC 10달러 → 7달러, UBS 10달러 → 6달러(투자 의견 하향)로 이어졌으며, 8월에는 Canaccord Genuity가 25달러에서 15달러로 조정했다. 데이터센터 · 전력 수요 확대라는 테마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수혜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콜에서 추정치 하향 흐름을 되돌릴 내용이 제시되는지가 관건이다.

그림 2 뉴스케일 파워 주가 vs S&P500 — 발표 전 약 90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재평가는 계약에서만 나오고, 지연되면 순자산이 잠식된다

주가는 순현금에 계약 성사 가능성에 대한 옵션 가치가 더해진 구조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매출 기반이 없어 PER · EV/EBITDA는 산출이 불가하고 PSR도 성립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유효한 지표는 PBR 1.71배 하나이며, 자기자본 20.14억 달러 중 19억 달러가 현금성 자산이다. 계약이 확인되면 재평가가 가능한 반면, 지연될 경우 분기 5,000만 달러대 손실과 추가 발행이 순자산과 주당 가치를 함께 잠식한다.

상회 시나리오는 TVA 확정 전력구매계약이나 RoPower 최종투자결정이 분기 중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때는 매출 인식 시점보다 재평가 재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합은 매출 공백과 -6,000만 달러대 영업손실, 투자손익의 부분 상쇄가 반복되는 경로로 주가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이고, 하회는 영업비용이 연 2.0억 달러 범위를 넘어서거나 두 프로젝트의 일정이 재차 미제시되는 경우다.

계약 가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손익만으로 방향을 잡기 어려운 구간인 만큼, 발표를 앞둔 현재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확신도 중간).

한눈에 보는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시장 눈높이(컨센서스)	회사 가이드	우리가 보는 초점
분기 매출	1,343만 달러	제시 없음	5만~200만 달러 전망, FEED 2단계 종료 후 대체 프로젝트 부재
주당손실	공식 분포 미제공(직전 분기 - 0.1303달러)	제시 없음	-0.15~-0.11달러 전망, 부합해도 주식수 희석 효과 분리해 판단
영업손실 · 영업비용	공식 분포 미제공	연 1.7억~2.0억 달러 언급(FY25 4분기 콜)	상반기 영업비용 1억 2,139만 달러 궤적이 상단을 넘는지
유동성 · 희석	해당 없음	최대 7.5억 달러 시장가 매출 프로그램	현금 · 투자 19억 달러 유지 여부와 Class A 주식수 추가 증가폭
TVA · RoPower	FY26 매출 4,336만 달러 전제	일정 미제시(세 분기째)	확정 전력구매계약 · 최종투자결정 시점이 숫자로 제시되는지
공급망 준비도	해당 없음	제시 없음	Paragon HIPS 최종 설계 진척, 장납기 자재 재공품 6,855만 달러 추이

※ 투자 의견 체계 — 적극 매수 > 매수 > 중립 > 비중축소 > 매도 5단계. 하우스 뷰의 방향(강세 · 중립 · 약세)과 확신도(높음 · 중간 · 낮음)를 결합해 부여하며, 목표주가 대비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이 아니다. 상향 · 유지 · 하향은 같은 종목 직전 발간물의 등급과 비교한 결과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